

“저 안에 우리 아이 있는데...” 처참한 선체 보며 오염

르포 - 팽목항을 지키는 미수습자 가족

“9명 모두 한꺼번에 발견돼 하루빨리 가족 품 돌아오길” 세월호 보고 억장 무너져... “이젠 팽목항 벗어나고 싶어”

“저 안에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9명 모두 한꺼번에 발견돼야 할텐데...”

진도 팽목항을 지키고 있는 미수습자 가족들은 지난 25일 밤 9시15분께 선체를 온전히 드러낸 세월호를 보지 못하고 돌아오게 마음에 걸렸다. 밤잠을 이루지 못한 미수습자 가족들은 26일 아침, 현장인 맹골수도로 다시 가기로 결정했다.

오전 9시55분께 가족들은 팽목항에서 전남도 어업지도선인 ‘전남201호’에 올랐다. 가족들의 애다는 마음을 알았는지 바람도 파도도 멎었다.

1시간20분 가량 지나 세월호가 보이기 시작했다. 3년만에 마주선 세월호다.

이날 함께 배를 탄 미수습자 가족은 은화양의 어머니 이금희(49)씨와 아버지 조남성(53)씨, 허다운양의 어머니 박은미(47)씨, 단원고 교사 양승진씨의 아내 유백형(54)씨, 동생 재근씨와 조카 혁규군을 기다리는 권오복(61)씨 등 5명. 다음이 아빠 허충환(53)씨는 몸이 아파 가지 못하고 팽목항을 지켰다.

이들은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식 선박인 화이트 마린호로부터 500m 떨어진 곳에서 주위를 돌며 세월호의 선수·선미·객실 부분을 지켜왔다. 세월호는 선체에 남은 바닷물과 기름을 빼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세월호는 상처투성이였다. 여기저기 구멍 뚫리고, 붉은 녹과 진흙으로 뒤덮였다. 세월호 왼쪽 앞부분에는 균열 흔적이 뚜렷했다. 선수에서부터 급이 파고들어 배 중앙부까지 뚫고 들어간 형태였다. 해수부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선수들기하다 중단됐

을때 발생한 균열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처참한 세월호의 모습을 본 가족들은 억장이 무너졌다.

이금희씨는 손으로 선미를 가리키며 “우리 은화가 마지막으로 저기 있었다”며 오열했다. 옆에 있던 다운이 엄마 박은미씨도 울먹이면서 “저 배 안에 우리 아이가 있다”며 잠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현장을 둘러본 가족들은 오후 12시50분께 팽목항으로 돌아왔다.

이금희씨는 “배수작업이 천천히 진행해 유실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머리카라 한 울, 손톱 하나라도 찾았으면 좋겠다”면서 “아이들이 가족을 만날 수 있게 국민 여러분이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양승진 교사의 아내 유백형씨도 “현장에서 보니 반잠수식 선박에 세월호가 온전하게 실려 있었다”며 “가까이 가서 남편이 있는 곳을 보니 마음이 힘들다”고 말했다.

옆에 있던 권오복씨는 “이제 성공까지 몇 단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 끝이 조금은 보인다”며 “이제는 팽목항을 벗어나고 싶다. 언제든 목포로 갈 준비는 돼있다”고 밝혔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이날 오후 세월호가 거처 될 목포신항을 찾아 준비 과정과 앞으로 지낼 곳을 지켜볼 계획이다.

한편, 주말을 맞은 팽목항에는 성공적인 인양과 미수습자들이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원하며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추모객들로 가득 찼다.

/진도 팽목항=김한영기자 young@



세월호 인양이 성공했다는 소식에 진도 팽목항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인양된 세월호는 반잠수식 선박에 실려 이르면 28일 목포 신항으로 이동하게 된다. /진도 팽목항=김한영기자 young@

굵히고 갈라지고 녹 뒤덮이고...배 이름도 거의 지워져

세월호 3년 해저생활 흔적

3년간 온 국민의 마음에 가라앉았던 세월호가 반잠수선에 얹혀 수면 위로 완전히 떠올랐다.

세월호 선체는 지난 25일 오후 9시 15분께 좌현 방향 직각으로 드러누운 채 선체 전부를 드러냈다. 선체를 받치고 있는 반잠수선도 26일 0시 완전히 부양해 수면에 결터앉았다. 세월호는 반잠수선 위에 누워 포획된 것 같은 모양새를 보였지만 평평한 반잠수선 갑판 위에서 수평을 맞추고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었다.

색이 얼어진 파란 페인트가 칠해진 하단에는 배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짙고 검은 띠를 만들었다. 바닥 부분에는 좌·우현 프로펠러 사이 방향타는 우현 쪽으로 살짝 들려

있었다. 방향타는 침몰 당시 급격한 대각도 조타의 원인을 규명하는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검찰 수사, 재판 과정에서 조타수의 실수, 기체 결함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됐다.

뱃머리 부분 바닥에는 중심에서 좌현 방향으로 갈고리에 긁힌 것처럼 길게 두 줄로 갈라진 부분도 목격됐다. 다만 바닥 부분의 큰 형제 변형이나 충돌, 파손의 흔적을 찾기는 어려웠다.

왼쪽으로 전도되면서 하늘을 향해 있는 우현은 바닷속에서 부식된 탓에 강한 수압의 물을 뿌려도 씻기지 않는 얼룩덜룩한 녹으로 뒤덮였다. 침몰 당시 구조자들이 매달리던 힘줄이 울려왔던 곳이다. 우현에서 두드러졌던 흰 돌출형 계단은 검붉게 바뀌었다.

뱃머리에 있는 ‘SEWOL’(세월)이라는

선명도, 꼬리 부분에 있는 ‘CHONG-HAEJIN’(정해진)이라는 선사명도 이제는 거의 지워져, 가까이 다가서야만 어렵게나마 운곽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였다. 유리창이 사라진 객실에는 칸마다 유실방지망이 덕지덕지 붙었다. 3년간 해저생활과 험준한 인양 과정에서 선체 곳곳이 갈라지거나 이가 나가듯 깨지고 구멍 뚫렸지만 원형은 옛 모습대로였다.

목포 신항 이동을 준비하는 세월호 주변에서는 배수와 잔존유 처리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화물차가 많이 실렸던 선미 주변을 중심으로 반잠수선 갑판 바닥에는 차량 등에서 흘러나온 기름을 빨아들이는 흰 흡착포가 깔렸다. 2~4일로 예상되는 배수를 거치면 세월호는 반잠수선과 고박을 단단히 하고 목포 신항을 향해 ‘마지막 항해’에 나선다. /연합뉴스

인사 불이익 걱정에 판사 88% 잇선 눈치

법관 10명 중 9명은 대법원장이나 법원장 등 잇선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정책·사법행정에 반대하면 인사나 사무 분담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지난 25일 공개한 ‘사법 독립과 법관인사제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법관 502명 중 443명(88.2%)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전국 법관은 2900명 안팎(지난해 9월 기준 현원 2871명·정원 외 법관 포함시 2902명)이다. 이 중 17%인 502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응답자 중 ‘대법원장·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의 정책에 반하는 의사 표현을 한 법관도 보직, 평정, 사무분담 등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다’는 설문에 60.8%(305명)는 “공감하지 않는 편이다”, 27.5%(138명)는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는 88.3%에 달하는 대다수 판사들이 대법원장 등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불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다.

또 판사 2명 중 1명 가량은 정부 정책이나 상급심과 다른 판결을 할 경우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행정부 또는 특정 정치세력의 정책에 반하는 판결을 할 법관도 보직, 평정, 사무분담 등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다’는 질문에 36.5%(183명)는 “공감하지 않는 편이다”, 8.8%(44명)는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해 총 45.3%의 비율을 보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주운 지갑으로 돈 ‘평평’

“...‘동전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손님이 놓고 간 지갑을 주운 뒤 돌려주기는커녕 지갑에 든 돈으로 음료와 음식을 구입한 20대 남성 3명이 나란히 경찰서행.

○...2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취업준비생 김모(24)씨 등 3명은 지난 1월 29일 오후 4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이모(15)군의 지갑을 주운 뒤 안에 든 현금 17만원을 인근 편의점 등에서 다 써버렸다는 것.

○...경찰은 노래 연습장 등 범행 현장 CCTV분석을 통해 커피 음료 캔을 들고 있던 20대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인 끝에 일당 3명을 모두 붙잡았는데, 경찰 조사에서 김씨 등은 “순간 욕심이 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었다. 피해자와 이미 합의도 했다”며 선처를 호소. /김형호기자khh@

수확철 미역 양식장 기름 흘러들어 ‘비상’

인양 과정 기름 일부 유출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유출된 기름 일부가 미역 양식장에 흘러들어 동거차도 주민들이 비상이 걸렸다.

지난 24일 오전 인양 현장에서 1km가량 떨어진 미역 양식장은 검은 기름띠가 떠오른 것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어민들은 전날 어선 15척을 동원해 인양 현장을 중심으로 오일펜스를 쳤으나 인양 작업 중에 기름이 흘러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3년전 세월호 참사 때 겪은 기름 피해로 입은 상처가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 기름띠가 미역 양식장을 덮쳐 오자 어민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동거차도 주민 150여 명이 70ha 규모의 미역 양식장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번에도 다시 기름 피해를 보면 살길이 막막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달 중순부터 미역 수확 철이어서 기름이 확산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정진배(55)씨는 “미역에 기름이 엉겨 붙으면 씻어낼 수도 없어 다 버릴 수밖에 없다”며 “2014년에도 다 폐기하고 겨우 보상금으로 1300만원을 받았는데 이마저도 인건비로 다 쓸 수밖에 없어 피해가 너무 컸다”고 말했다. 미역 양식장을 둘러본 동거차도 주민들은 이날 오전 마을회관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진도군청과 세월호 선체 인양업체인 상하이 샬비지 관계자들도 기름 유출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전국서 애도...정홍원 전 총리·이주영 전 장관도 찾아

팽목항 추모 발길

휴일인 26일 팽목항에는 전국에서 온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3년 전 그날처럼 자원봉사자들의 방문도 잇따랐다.

추모객들은 팽목항에 마련된 분향소와 바다를 향해 쪽 뺀 방파제 끝에 놓인 빨간 등대를 둘러보며 희생자 명복을 빌고 또 빌었다. 분향소 앞에 놓인 방명록에는 “미수습자 가족들 소원이 유가족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부디! 꼭 가족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야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온전한 인양을 기원합니다” 등의 글이 쌓여갔다.

모두가 하나같이, 맹골수로에서 침몰한 지 3년 만에 수면 위로 올라온 세월호가 목포 신항으로 무사히 인양되기를, 9명의 미수습자가 가족과 마주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3년전 그날처럼, 팽목항에는 자원봉사자들의 방문도 이어졌다.

“한국SNS연합회” 회원 30여명은 경기도 광명에서 팽목항으로 ‘사랑의 짜장차’를 몰고 왔다. 이들은 준비해온 신선한 재료를 이용해 순식간에 짜장면 1004인분을 추모객들에게 대접했다. 딸기 등 간단한 요거트도 내놓으며 추모객들과 함께 희생자 명복을 빌고 미수습자 가족들을 위로했다. 이 단체 회원 조미경씨는 “전날 밤 차를 몰고 회원들과 함께 왔다. 추모객

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피로도 싹 날아가고 뿌듯했다”고 말했다. 팽목항소 뒤에는 무료로 커피를 나눠주는 봉사단체도 있었다.

전국을 돌며 공연하는 ‘구리기 품바 공연단’이다. 이들은 26일로 예정된 행사를 취소하고 1만7000잔의 커피를 준비해 팽목항으로 왔다. 공연단의 공성권(44)씨는 “한번쯤 팽목항에 와서 봉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세월호 인양 장면을 TV로 보니까 오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국무총리였던 정홍원 전 총리와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이날 팽목항을 찾아 미수습자 가족들을 위로했다. /진도 팽목항=김한영기자 young@

나주, 다도면 임야

- 전남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 191-17번지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상수도 전기 통신설비, 부지입구까지 인입됨
- 전원주택 허가 필, 기타 모든 개발가능
- 나주호 휴양림 / 둘레길 진행중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11억 3800만원 (평당 80만원)

광양시, 근린상가

- 전남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홈플러스 남동쪽에 위치)
- 6층 건물 중 4층 전체, 2012년 신축
- 분양평수 210평, 실평 147평
- 점포 및 상가 성숙 발전지역
- 중동 라키펀터 근처
- 모든업종 오픈 가능
- 감정/시세 - 13억
- 급매 - 8억 8천만원 (일시불 조정가)

나주, 남평읍 토지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32번지 외 6필지 (532-1,2,11,31,33,47번지)
- 전남 노인요양원 바로 옆
- 토지 6256평 / 건물 256평, 계획관리지역
- 백운동 20분, 남평 10분, 강변도시에서 5분거리
- 현재 양어장 운영중 (4월 철거 예정)
- 인근 전원주택 단지 평당 70만원씩 분양중
- 모든업종 개발 가능
- 매매 - 25억 (평당 40만원)

회사 사정상, 싸고 좋은물건, 급매 합니다. 주인직매 H. 010-3605-5000 인터넷으로 위치 확인하고 전화요망